

‘장흥사랑주소찾기, 장흥愛 살기’ 캠페인

전남 소방본부 방문해 이전서비스 활동 전개

다양한 시책 마련해 안정된 정착 여건 도모

장흥군은 지난 8일 전남 소방본부 방문하여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는 바쁜 일상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내 전입신고가 어려운 근로자 등에게 현장 주소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이다.

장흥군은 전남 소방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과 전입 혜택을 홍보하며 소속 직원들이 ‘장흥사랑 주소찾기, 장흥愛 살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하였다.

장흥군은 결혼장려금 최대 7백만

원 지원, 출산장려금 최대 1천만 원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비롯하여 전입세대 지원, 귀농·귀촌·귀어민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안정된 정착 여건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사업’ 및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기관사회단체와 기업체,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존립 기반인 인구 늘리기



극적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존립 기반인 인구 늘리기

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의 유쾌한 변화, 속도 높인다

해남형뉴딜 & 블루이코노미 실행력 강화 대책보고회

해남군은 지난 5일 해남형뉴딜 및 블루이코노미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정책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해 ‘스마트 에이스 종합행정’으로 실행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해남형 뉴딜 총 71개 사업을 확정하고 한국판 뉴딜에 신속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번 보고회에서는 66개 사업이 정상추진 또는 실행 준비에 들어가 93%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또한, 전남도 미래발전 비전으로 제시한 블루 이코노미 100대 과제를 산이 구성지구의 스마트 블루시티를 비롯한 6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27대

과제를 확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해남군은 발굴된 정책에 대해서는 ‘스마트 에이스(ACE) 종합행정’을 통해 행정(Administration), 도시(City), 경제(Economy)를 아우르는 정책의 통합관리로 추진력을 높일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상반기에 집중된 관련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중앙·도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정책의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로 관련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기동취재본부



완도자연그대로미(米) 러시아 공략 순항

오염되지 않은 토양·깨끗한 물·해풍 등 자연그대로 농법으로 키워

완도군에서는 오염되지 않은 토양과 미세먼지 없는 공기, 깨끗한 물, 미세 먼지가 풍부한 해풍 등 완도만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자연그대로 농법을 실천하여 완도자연그대로미(米)를 생산하고 있다.

밭맛이 좋고 품질이 뛰어난 완도자연그대로미(米)는 지난 2018년 말레시아를 시작으로 미국, 러시아 수출 길에 올랐다.

그동안 3개국에 총 48톤이 수출되었으며, 2월 9일에는 완도농협연합미국처리장(RPC)에서 러시아 3차 수출(16톤)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완도군의회 김재홍 의원, 전남농업기술원 김선표 지도관, 김진수 농업중앙회 완도군지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수출길에 오른 완도자연그대로미(米)는 NH농협무역을 통해 부산항에서 선적한 다음 러시아 사할린 코르시 코프 항구에 도착, 사할린주, 블라디보

스톡 등에 유통된다. 특히 러시아 바이어와 5년 간 700톤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보하였다.

완도자연그대로미(米)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전남 쌀 고급화를 위해 개발한 신품종인 새생무로 농촌진흥청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기술 지도를 받아 최고 품질 쌀 계약재배단지에서 재배하고 있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최고 품질 쌀 단지 전 면적(342ha)에 GAP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RPC(미국종합처리장)에 GAP 인증을 획득하고, DSC(변조저장시설)를 설치하여 연중 내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기동취재본부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지능형 박물관으로 바뀐다



고려청자박물관 체류형 실감체험 플레이존 구축안

고려청자박물관은 지난 9일 전국

디지털뉴딜 스마트박물관 조성사업에 2건 총 12억 선정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뉴딜 사업인 ‘스마트박물관 기반조성사업’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박물관 기반조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미래 기술을 활용하여 박물관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사업’과 ‘스마트 박물관 구축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진다.

고려청자박물관은 두 사업에 모두 선정되어 국비 6억 원을 포함 총 12억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사업’은 청자의 연료 채취부터 제작·운반·발굴·복원 등의 전 과정을 놀이기구와 접목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체험존을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박물관 구축지원 사업’은 AI를 기반으로 한 박물관의 전시 및 관람 안내를 개선하고, 온라인 비대면 원격교육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의 대표 콘텐츠인 고려청자에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청자와 관련한 가상체험을 제공하여 관람객에게 색다른 체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강진군, 동절기 모기 유충 방역 실시

다세대주택 지하실 등 모기유충 다발지역 106개소 집중 방역

강진군은 월동기를 맞아 하절기 모기 개체수 감소 및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절기 모기 유충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진군보건소는 2개반 4명으로 방역반을 편성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지하실, 정화조, 하수구 등 106개소를 대상으로 분무소독과 유충구제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유충구제사업은 모기 유충 1마리 방제로 모기 500여 마리를 구제하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지하실에 산란하고 성장하는 유충이 성충으로 부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해충 개체수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또, 이번엔 사용하는 유충구제제는 농약성분의 성장억제제들과 달리 공중방역전문용 친환경 유충살충제를 사용해 환경오염도 최소화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이번 구제방역을 통해 모기 발생 우려 시설을 중심으로 관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꾸준한 예방활동으로 모기매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준한 예방활동으로 모기매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